오늘은 제 74과 베들레헴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것이라
3.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전에는 본 공과의 주제를 말씀대로 오신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었는데 이번에는 베들레헴의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단원은 대단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에서 잘 알고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를들면 다윗이나, 모세나, 또는 다니엘 삼손,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알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좀더 자세히 배워야될 필요가있는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단원들이 조금 작다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단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좀더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수 있도록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궁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 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노아의 방주를 공부를 했는데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

잣나무로 만들어졌고, 3층으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아라랏산의 높이가 어떻게 되어있고,

그 아라랏산에가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작 자기와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예수님과 자기자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예수님, 먼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죄없이 태어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있죠. 성경 요한1서를 잠깐 보겟습니다.

요한1서 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비루어서 이땅에 오셨다는것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죄가 없다는 것.

첫사람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도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전15:45,47
45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비교를 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산영이였지만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사람 ,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목적,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일, 그날을 기념해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 성탄절이라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날짜는 어느곳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예수님이 성탄하셨다는, 탄생하셨다는 날짜도 12월25일로, 로마 카톨릭에서 정한 그 날로 알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희랍 종교에서는 1월 6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사실은 아니죠 성경에는 기록되있지 않습닏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의 구원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주셨는데 정말 너희의 죄도 사함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 개개인의 죄도 가져갔는지 아이들에게 확인을 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기만의 성탄절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개인의 성탄절이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날 기념할수 있는 그리고 기억할수 있는 중요한 이유에 대한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의 거짓, 잘못된 것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합성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에 미사 라는 단어.

미사는 카톨릭에서 나온 예배라는 , 그에 합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12월25일로 지키는 이유는, AD273년에 로마의 오레리언 황제? 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이였는데 그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일이 였는데 그걸 도입을 했죠.

4세기 후엽에 율리우스 1세가 누가복음 1장 27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태양이시다 하며,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모든 교회에서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때, 그때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월 달이면은 우기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거기서 밖에서 양을 칠만큼 날씨가 따뜻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양들을 밖에서 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2번 다녀온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사진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그런 사진을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드문일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12월 달이면은 쌀쌀한, 밖에서 사람들이 기거 할수 없는 그런 추운 날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그때 성지순례를 다닌 사람들은 늘상 우산을 받치고 다녀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하셨다는 12월 25일이 잘못된, 거짓도 우리가 또 밝혀내야 됩니다.

어또 한가지 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잘못 전해져 왔던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에 구유에 뉘었다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마굿간에 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마굿간이라는 단어는 한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짐승의 우리로 알려져 있지 마굿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키우는 마굿간이라 말하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였다 라는 사실고요.

구유에 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곧바로 있었던 일이죠.

누가복음 2장 15절.
눅2:15-19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18.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19.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경배 했던 것은 천사가 알려주고 그리고 강보에 싸여서 구유에 뉘인 예수님을 봤다, 그것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즉시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구유에 뉘인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아니였습니다.

그건 그보다 훨씬 뒤 , 1년2 년 후의 일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1.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오셨는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뵙고 그리고 경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아 우리가 한가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조금은 오랜 기간을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1절.

마 2장 1: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세가지 것.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왕의 상징이고 유향은 제사장의 , 그리고 몰약은 방부제로써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이 세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에 근거해서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박사 들 이라고 복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2명이상이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수있지만 딱히 3명이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박사들이 꿈에 천사들이 현몽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헤롯은 아이들은 죽였는데 , 16절에 있죠.

마 2: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던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자 마자가 아니고, 시간이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는 연극들, 세상사람들이 만든 연극들을 볼때 , 그때 보면은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와서 , 예물을 드리는데 , 구유에서 2년동안 혹은 1년동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곧바로 있었던 일이아니고, 한참후의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 또 우리가 그것도 바로잡아주는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가지 것 ,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몇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양이 되려고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추후에 이제 자라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님 손을 잡고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장면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단원들을 우리가 공부할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전달할수있도록,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지않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베들레헴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 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결실하는 시기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마지막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결실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